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8(土)	19(日)
 맑음 14/28℃	 흐려져 비 15/25℃

News

- 전남 쌀값 전국 최저 ②
- 재미건축가 최완원씨 ③
- 신지애 환상의 홀인원 ⑧

Books

- '고고학의 즐거움' ⑭

Entertainment

- 연예인 책 출간 잇따라 ⑧



- 빅스타 저예산 영화출연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갈치 ⑬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직불금 지주가 타 먹는데 논 뺏길까 봐 말도 못해”

속앓이 농민들 “이번 기회에 부정 수령 뿌리 뽑아야”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농민이 아닌 부재지주에게 부당 지급된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직불금 사태가 뻥히 예견되는데도 정부가 이를 방치한 때문이다. 농민들은 직불금 부당 지급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직불금 부정 수령 사실을 신고하면 지주에게 농사 지을 땅을 빼앗기게 되고, 부정 직불금 또한 실경작자인 자신이 아닌 국고로 고스란히 환수되기 때문이다. 영암에서 3천㎡의 논을 임대해 경작하고 있는 김모(52)씨는 “직불금을 광주에 사는 지주가 해마다 타가고 있지만 어떻게 신고를 하겠는가. 신고하면 지주에게 땅을 빼앗기게 되는데 알면서도 눈감을 수밖에 없다”고 한숨지었다.

실제로 쌀 직불금 제도 시행 이후 농민들의 자발적인 부당 지급 사례 신고는 거의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광주·전남연맹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액 85%를 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시행됐지만 농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업인의 경우 땅 주인이 직불금을 수령해 가더라도 ‘경작을 그만두려고 할 것’을 염려해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올 들어 전남지역에서 쌀 직불금을 받은 농가는 17만2천513가구다. 전체 농지 18만9천381ha 중 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면적은 7만724ha(37.3%), 소작을 하는 임차면적은 11만8천657ha(62.7%)로, 임차 농업인이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적발된 직불금 부당 지급 사례는 사실상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시각이다.

전농 등 농민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직불금 부당 지급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직

불제의 당초 도입 취지대로 경작자가 반드시 받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20일 전남도청 앞에서 쌀 직불금 부당 지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벼 야적시위를 열 계획이다. 농민회 관계자는 “직불금 부당 지급은 범죄행위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불금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부당 지급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와 당국이 이를 무시해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 일부 고위공직자도 수령 확인

전남에서도 고위 공직자 중 일부가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본보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1급 이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광역의원 이상)을 대상으로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남지역 의원 일부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본인들이 직접 논 인근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만큼 직불금을 수령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본인 소유인 1천500㎡의 논을 소유하고 있

는 전남도의회 A의원은 2006년 75만원, 2007년 50만원의 직불금을 각각 수령했다. A의원은 자신의 땅 외에 마을 주민의 농사도 대신 지어주면서 쌀 직불금 수령했다고 밝혔다. B의원은 1천200㎡의 논에 농사를 짓고 있으며 지난 해 8만원의 직불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C의원은 모친 명의로 2005년 43만원, 2006년 50만원, 2007년 50만원을 수령했으며, 자신이 직접 7천㎡의 논에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의혹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직불금 수령’ 전면조사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직불금) 부당 신청·수령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정부가 공무원을 상대로 직불금 부정 수령 여부 등에 대한 전면 조사를 착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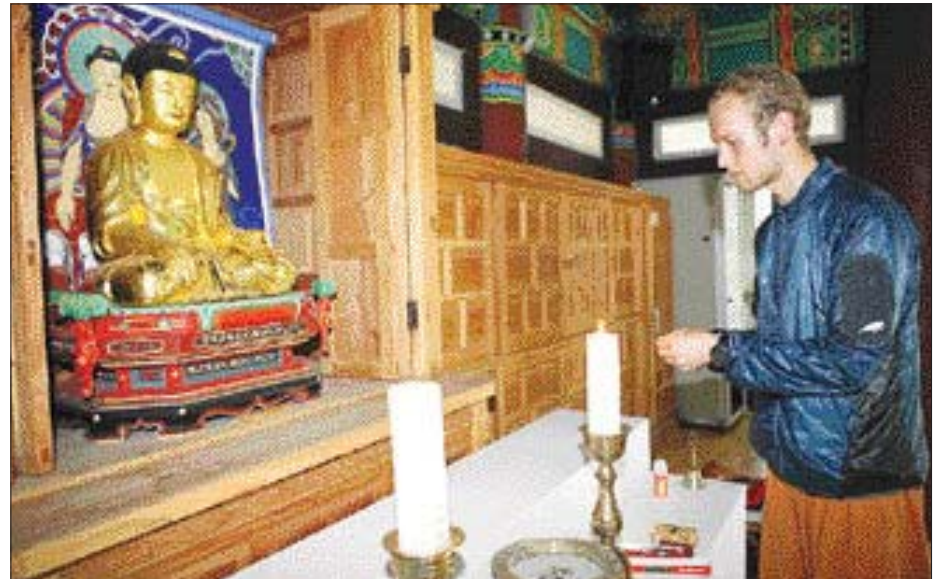
행정안전부는 17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받은 뒤 확인작업을 거쳐 부당 수령자로 판단되면 환수 조치하고 엄중 처벌하기

로 했다. 특히 장·차관 등 정부직 공무원, 고위 공무원단 1천647명과 가족 5천929명 중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 7명에 대해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직불금 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감사 진행 상황을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성북구 모래위 50



해남 대흥사에서 수도생활 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영국인 피터씨가 보현전에서 저녁 예불 준비를 하고 있다.

해남 대흥사에서 자원봉사 영국인 피터씨

“예불·절밥에 점차 매료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새벽 3시, 해남 대흥사 경내에 하나, 둘씩 불이 켜졌다. 속세보다 이른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사찰과는 어울리지 않는 파란 눈의 사나이가 눈에 띄었다. 바로 수도생활 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영국인 피터(24)씨다.

피터씨의 첫 일과는 초의선사의 ‘선다일어(禪茶一如)’ 사상을 배우는 수련생들의 단잠을 깨우는 것. 5분여 만에 첫 임무를 끝낸 피터씨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불경을 따라 읽으며 아침 예불을 마쳤다.

곧이어 새벽 숲길을 걷는 참선시간. 수련생들과 스님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피터씨도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쏟아냈다. “왜 여자 스님은 없고 절은 산속에만 있습니까?”

참선을 끝낸 피터씨가 수련생들에게 아침 공양(식사)장소를 설명하는 데 한 국말 실력도 제법이다.

피터씨는 밥 두 그릇에 배추김치와 오이김치, 목, 전 등을 푹푹 해치웠다. 수저를 놀리는 모습이 제법 절밥을 먹어본 손씨다.

피터씨는 수련생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틈을 타 저녁 예불 장소인 보현전을 청소하고, 촛불과 향을 피워놓는 등 매사

에 바진다. 피터씨는 틈만 나면 법장스님이 있는 관음암으로 달려간다. 목적은 법장스님이 들려내는 녹차의 깊은 맛을 느끼기 위해서다.

예의 바른 행동으로 대흥사내 최고의 인기 스타이기도 한 피터씨가 대흥사와 인연을 맺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난 7월 어느 날 대흥사를 불속 방문한 피터씨는 하룻밤만 머물기를 청했다고 한다. 다음날 눈을 뜬 피터씨는 또다시 하룻밤, 그렇게 맺은 인연이 벌써 3개월째다.

러시아 출신인 피터씨는 10살 때 영국으로 건너갔고, 런던대학에서 ‘일본학과 한국학’을 전공했다. 피터씨의 한국행은 이번이 4번째다. 평소 절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피터씨는 올해 런던대학 시절 동기인 한국인 친구의 소개로 대흥사를 알게 됐고, 무작정 해남으로 찾아왔다.

이달 말 한국을 떠날 예정인 그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직장도 잡고, 본격적인 한국생활을 시작해 볼 작정이다.

피터씨는 “일본보다는 한국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면서 “진정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꿈”이라며 활짝 웃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